

39. 도급공사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기중, 폐렴, 뇌경색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도급공사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윤○○는 2004년 5월경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았으며, 2005년 5월 31일부터 K시 폐기물 소각장 외벽의 도장 및 실렌트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6월 폐렴, 폐기중, 간질환, 당뇨병의증으로 진단받다 요양 중 뇌경색이 발생되었다.

2. 작업환경: 근로자 윤○○는 1985년부터 20년 도장작업에 종사해 왔는데, 2005년 5월 31일부터 2005년 6월 10일까지 하루 10시간 정도 폐기물소각시설의 건물 중 크레인실(쓰레기 반입 후 소각 전 적재장소) 복도 실렌트 공사 및 건물의 외벽 도장공사를 하였다. 작업시 내부에 쌓아둔 일반쓰레기에 의해 냄새가 약간 난다고 하였다. 페인트는 수성을 써서 유기용제(신너)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락카 희석제와 프라이머를 직접 혼합하여 냄새가 심했으며, 에폭시 작업은 실리콘을 틈새에 넣는 작업으로 틈이 너무 넓은 경우 분사하는 우레탄 폼과 분사하는 총의 크리너에서 독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도료에는 이소시아네이트 계열이 있어 TDI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과거에도 방수도장 일을 하면서 장기간 TDI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의학적 소견: 담배는 25년 동안 하루 두 갑을 피웠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과거 간질환, 담석증을 앓았고, 20년 전 기흉으로 수술 받았다. 그 후부터는 자주 숨이 차고 기침을 하였는데, 방수도장 작업을 할 때부터 기침이 많이 났으며 설 때는 호전되었다. 2003년 1월부터 호흡기 증상이 심해져 2005년 6월 29일 병원에서 폐렴, 폐기중, 간질환, 당뇨병의증을 진단받았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호흡기내과로 전원되어 치료요양 중 뇌경색이 발생되었다.

4. 결론: 근로자 윤○○는

- ① 장기간 방수도장 작업 및 2005년 폐기물소각장 외벽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직업성 천식의 일종인 TDI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 ② 천식은 확진되지 않았으며, TDI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성 천식의 양상과도 다르고, 과거의 폐질환은 장기간의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되며,
- ③ 2005년 6월 29일 발생한 폐렴, 폐기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는데, 폐기물소각장 도장작업에 의해 급성으로 악화되기 어려우므로,

폐렴과 폐기중은 상기 도장작업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뇌경색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상기 도장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